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을 펴십시오. 11장 1절은 사실 10장에 속하는 것으로, 바울이 10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생각들과 함께 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본보기로 두었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본보기로 보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에, 기꺼이 여기 저기에 조언하며, 어떤 일을 하는데 대한 자기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는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바울은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2년 간 있으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에게 교회의 규례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모든 일에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도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기에, 지금 문제가 있으며 너희들이 나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 나의 충고와 자문을 구하려고 편지를 썼도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요 과제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여자는 노예보다 한 단계 위로 취급당했습니다. 종종 여자는 그녀의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2급 시민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러한 여자들의 취급으로 로마에서 그 당시에 여러 여성 해방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성해방 운동은 여자들이 받는 학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으로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경건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질서를 확립해 놓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머리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질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문제와 주제는 평등함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신령한 질서입니다. 물론 여자들이 많은 일을 할 자격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자가 일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보다도 더 똑똑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사는 골프를 치는 동안에 사무실에서 여자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사는 그 여사무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령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질서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증인들이나 몰몬교 등 많은 사람들은 종종 이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5-11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나타낸 가장 위대한 형상은 마태복음 26:39-44절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여기 이 땅에 그의 육체 가운데 계실 동안 아버지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영광이나, 천지 창조 전에 가지셨던 영광과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뜻인 인류의 대속을 위한 계획에 순종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항상 슬픈 일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올 때입니다. 이러한 일이 고린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 해방 운동에 연루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러한 규율과 규정과 남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권주의자 성경, 중성 성경 등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고, 또 내가 알기론 NIV 성경도 좀 더 중성으로 만들려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여성 해방 운동의 영향으로 이 시대의 압력에 따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사회의 현대 운동에 따르기 위해 교회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있음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11장을 공부해 내려갈 때, 우리가 좀 더 아래로 공부해 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특히 여인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전체 문제를 매우 균형있게 다룬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균형잡힌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질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만일 남자가 그의 머리를 가리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요, 만약 여자가 그녀의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그 당시 결혼한 여인들은 베일을 썼던 특정한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베일을 쓰는 목적은 어느 남자도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정욕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은 오직 그녀의 남편만이 그녀를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그녀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공공연한 장소에 나갈 때 베일을 써야했습니다. 그 당시 그 문화에서 여인들은 베일을 써야 했고, 단지 베일을 쓰지 않은 여인은 종종 머리를 다 깎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베일을 쓰지 않았거나 머리를 다 깎은 여인을 본다면 보통 창녀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베일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여인은 그녀의 머리나 그녀의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는 창녀임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고린도에는 고린도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사랑과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수 천명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로 내려와서, 그들이 번 돈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을 후원했습니다.

6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에 처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한 가지 금지사항은, (디모데전서 2:12)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디모서 2:4)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권면하며, 자기의 간증을 나누며, 전도하며, 권고하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위임을 받은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여자들에게 금지된 것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령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자가 독처 하는 것이 좋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깊이 잠들었고 어떠한 방법이었던지 이것에 대해 많은 제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또는 아담의 옆구리를 취하셨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빗으시고 남자로부터 수혈을 받았다는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반려자와 함께 교제하도록, 사랑하도록, 또 아름다움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고 그녀는 아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브가 금지된 과실을 먹었고 그것을 또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 또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선언하셨을 때 (창세기 3:16) 말씀하시길,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처음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아가 처음에 세워진 질서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이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이것에 대한 일반적 해석은 우리 가운데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신령한 질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신령한 질서를 지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질서를 위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11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균형을 갖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자면, 주님 안에는 이러한 동등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모두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썼듯이, (갈라디아서 3:28) 남자나 여자나 종이냐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신령한 질서에 관해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음은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는 영광스러운 평등함이 있습니다!

종종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더 영적이며 더 민감하고 영적인 것들에 더 잘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아내는 나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밀고 나가자는 식인데, 내 아내는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나도 여러 번 아내의 말을 들을 것을 하고 말한 적이 많습니다.

만약 여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선교 활동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통하여 선교 사역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일들을 해 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마지막 16장에서 그는 여러 여인들에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한 그들의 사역과 일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습니다.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다른 말로, 만일 여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고 당신 또한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다시금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말하기를, **14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 이 구절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것은 수년 전 그 당시에 있었던 특정한 문화적 현상을 다룰 때였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론 한 때 우리 교회에 남자 성가대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때 나는 강단에서 그들의 뒤에 앉았었습니다. 그들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성가대 가운을 입자는 생각을 했었고, 이 남자들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길고 웨이브가 진 아름다운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여기 그들의 뒤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앞모습을 사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보리 채플 성가대, 그들의 앞모습은 수영이 있고 할아버지 안경을 쓴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참으로 많은 긴 머리를 한 남자들이 있었을 때, 나는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과 목사님들과 카톨릭 교도들로부터 공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나에게 갖다대며 공박했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본성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라디오 토크 쇼 등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결 같이 이러한 질문으로 나를 공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비축해 두었던 답으로 남자들의 긴 머리가 무엇입니까? 조지 워싱턴이나 초대 대통령들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무엇이 길단 말입니까?

두 번째로, 그것이 죄라고 어디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단지 부끄러운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길고, 굽슬한 머리를 허리까지 내리고 다니는 남자들을 볼 때, 나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머리를 빗으려고 할 때, 나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긴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들을 변호키 위해 나를 택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15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또는 베일)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16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법은 아닙니다. 적어도 베일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입장 때문에 고린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만찬과 성만찬으로 돌립니다. **17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이 서신 첫 부분에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되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분열은 영적 개발이나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의 표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특정한 교리의 관점이나 교리상의 문제로 논쟁을 하기를 원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표시입니다. 그들은 영적 성숙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그들이 지지하는 어떤 교리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분열을 만들면 그것은 육신적인 표시임을 알아야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자라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일에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모일 때 분열이 있다함을 들음이어야 또한 내가 대강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작은 종파와 분단으로 나뉘고 또한 당파와 교파들로 나누어 졌습니다.

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초대 교회에서 그들은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식사는 교회에서 베푸는 이 사랑의 축제날이었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 그들은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와 나누어 먹는 잔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랑의 만찬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이 노예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만찬이었습니다.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이는 시강하고 어떤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을 배고프게 남겨두었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 예민하여야합니다. (에베소서 4:32)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다른 이들 위에나 앞에 내 세우지 말며,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치 말고 형제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양상이어야 하지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 위에 남들을 앞세우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양보하기는커녕 다른 이들 보다 더 먼저 달려듭니다.

가족형식으로 접대하는 수련회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관찰한다고 해서 나와 같은 식탁에서 먹기를 원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끔 보는 것은 고기가 나와서 식탁에 돌아갈 때, 식탁에 여덟 사람이 앉으므로 고기가 여덟 조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두세 조각을 집으면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하므로 식탁에 중간 정도 돌아갈 때면 고기는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이런 돼지 같은 사람들이 줄 앞에 서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져가므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돌아갈 만큼

충분한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 이것을 조심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와서 마시되 이 사랑의 만찬에서 술에 취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식당에 가서도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나도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도 관리자로서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지나갈 때 여기 저기에 종이와 컵, 맥도날드 포장지 등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차장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줍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집과 예배하는 장소가 단정하고 깨끗하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식당에 갔을 때 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담배를 가지고 급히 뺨뺨 피우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있기에 가족과 같이 앉기 전에 문 밖에 서서 서너 모금 급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는 4분의 3정도 핀 담배꽂이를 땅에 던지고는 그것을 발로 밟았습니다. 내가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담배 연기가 사라지기를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거기 길에 담배꽂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아니 그 사람은 그가 버린 이 담배꽂이를 누가 집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이렇게도 지각없는 행동을 하는가? 누군가가 그가 버린 담배꽂이를 집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 담배꽂이를 집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는가? 나는 정말로 식당에 들어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당신이 인도에 담배꽂이를 버린 것을 아느냐고 말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가 그 담배꽂이를 주어서 버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것을 주어서 버려야 합니까?

고려하는 것,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먹는 과자 포장지들을 줍는 사람을 둔 대단한 왕비가 아닙니다. 단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은 야비한 무리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이제 주의 만찬, 그 자체에 대하여,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시작의 말을 이러한 말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노라!

나의 공부하는 시간은 나에게 매우 귀하고도 신나는 일입니다! 나의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성경께서 성경 말씀을 열어 주시게 하고 그것을 함께 종합하셔서 초안을 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흥분됩니다. 그것은 매우 신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설 때, 나는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조용히 그 분을 기다리며 말씀 안에서 주님과 홀로 함께 하는 동안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이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관해서,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또한 전한다고 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유월절은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것을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경험하였던 쓰라린 노예 생활을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 엄청난 고통의 노예생활과 애굽에 거대한 유적들을 만드는데 벽돌들을 붙이기 위해 바른 모르타르를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숙박에서 건지셨으며, 어떻게 어린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므로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로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떼시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직도 기념하는 것이지만,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함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죄의 능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기념하는 옛 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행하여야 하는 성찬식입니다.

27 그러므로 (이것은 이 만찬이 어떤 술 마시고 떠드는 파티처럼 질서 없이 되어버린 것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술이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것은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견디신 고통을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찢기셨고, 그의 피는 나의 죄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진지하게 경배드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그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수 세기를 통하여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카톨릭교와 유대교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고 유대인들도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죄책을 로마인들에게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핍박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다툼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아닌, 당신과 나의 죄가 주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피흘리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은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술을 마시고 떠들면서 가치 없는

식으로 임한다면 나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악을 더하게 됩니다.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떡과 잔을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어보아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이들을 점검하는 데는 능란한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결정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는 참으로 엄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느그럽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는 한 그리 나쁠 것이 없어! 내가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누구든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것을 할 때 비로서 이해도 하며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압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한 후 (사무엘하 12:1-7)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부자와 그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종과 가축 등이 있었습니다. 그 옆집에 매우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단지 양양 새끼 하나뿐 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그 가난한 자에게 자식과 같아서 그 양양과 함께 먹었고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 동물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자식과 같았으며 그 가난한 자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매 그 부자는 하인에게 옆집에 가서 강제로 그 양양 새끼를 잡아서 죽여 손님을 대접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몹시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단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너,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나단은 밧세바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웃 사람인 우리아에게는 오직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강제로 그녀를 취했습니다.

보십시오, 단지 몇 개의 세부사항만 바꿨지만 줄거리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단지 그 이야기의 세부사항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이었지만, 다윗은 자기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줄거리는 그대로이고 단지 몇 개의 세부사항만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와 당신이 한 것에 단지 조금만 바꾸어서 말한다면 당신은 판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가혹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다윗, 바로 네가 그 사람이로다! 내가 했을 때는, 뭐, 그건 그렇게 나쁜 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고 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면 형통치 못하나,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9-10).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몹시도 사악한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속이지 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속임수와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나의 생각을 아십시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알고 계시는 진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진실함은 그 사람이 게임에서 이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게임에서 졌을 때 보통 나타납니다. 일이 잘 되어질 때가 아닌 일이 잘

안될 때 진실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진실을 보고 인식할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속아서, 아! 나는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쳐서 죽이셨을텐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 이렇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고, 야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1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신을 살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였다면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32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함께 우리를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함께 정죄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품행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33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줄 앞에 서려고 뛰어가지 말라! 먼저 서기 위해 팔꿈치로 밀어 제치지 말고 서로를 위하여 기다리십시오. 아마도 다음 식사 때에는 사람들을 식탁에 오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은혜스럽게 하십시오.

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나 (만약 당신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지금으로서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거기 갈 때,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장입니다.

다음 세 장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공부로 들어갑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12장을,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통 그 뜻은 교회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너희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할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해 많은 무지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12장으로 들어가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 곳까지 인도하셨고,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먼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먼저라는 태도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가지려는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자비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친절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